

일본 정부의 철도산업 해외진출 강화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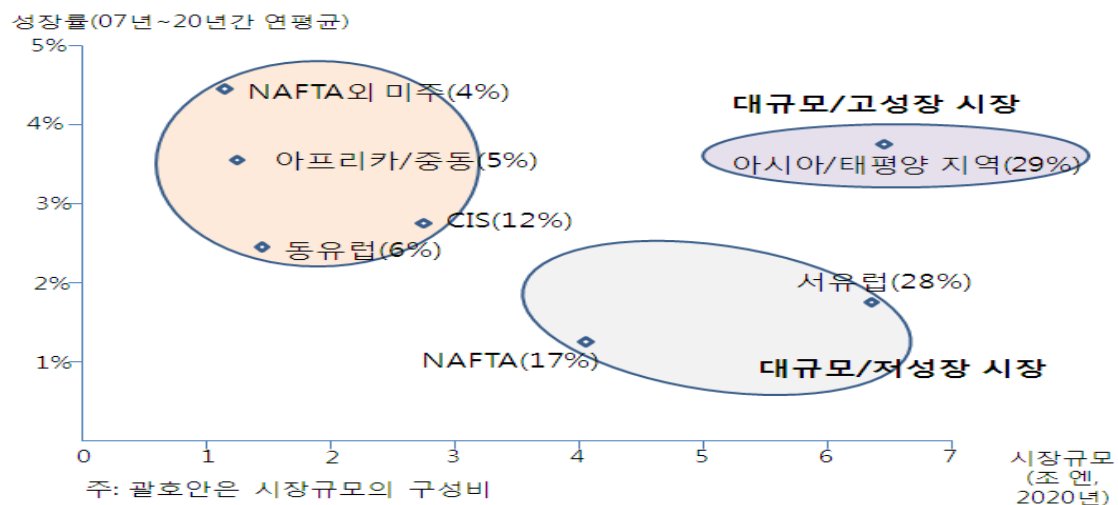
일본 정부는 최근 인프라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전략(안)을 마련함. 이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분야의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하여, 세계시장 규모, 일본 기업의 강점과 과제, 향후 정책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함.

□ 세계 지역 가운데 향후 철도시장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아시아

-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의하면, 철도분야의 세계 시장규모는 2007년 15.9조 엔(약 190조 원)에서 2020년에는 22.0조 엔(약 264조 원)으로 확대
 - 철도 종류별로는 고속철도의 시장규모가 2007년 1.1조 엔에서 연간 2.5%씩 성장하여 2020년에 1.6조 엔으로 확대되고, 도시철도(지하철, 고속철도 이외의 철도)의 경우는 2007년 14.8조엔에서 2020년에는 20.4조 엔에 달할 전망이다.
 - 2020년 기준, 철도부문별 시장규모는 총 22.0조 엔 가운데, 보수 분야 9.3조 엔(42%), 차량 6.6조 엔(30%), 궤도 4.3조 엔(19%), 신호·제어 1.9조 엔(9%)으로 전망됨.
- 세계 지역별 철도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전망(2020년 기준)을 살펴보면,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은 시장규모(전체의 29% 차지)와 성장률(2007년 이후 연평균 3.8% 성장) 측면에서 단연 돋보임.

- 서유럽이나 NAFTA 지역은 성장률은 낮으나 시장규모가 크고, 중동·아프리카나 CIS, 동유럽의 경우 성장률은 높지만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.

〈그림 1〉 2020년 세계지역별 철도 시장의 규모 및 성장률



자료: UNIFE, World Rail Market Study-status quo and outlook 2016(경제산업성 자료 재인용)

□ 일본 기업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강하나 소프트웨어는 취약

- 경제산업성의 진단에 따르면, 철도분야의 일본기업들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보수비용이 낮으나, 안전 개발단계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 입찰에 불리
- 또한 일본 국내에는 철도의 해외 컨설팅업체와 운영사업자가 부족하며, 기존 기업들 역시 해외진출 의지가 약하고 해외에서의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제안 능력이 취약
- 한편, 한국이나 중국 기업들은 비용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,

유럽 빅3(봄바르디아, 알스톰, 지멘스)는 컨설팅기능 등을 무기로 세계시장을 석권

* 세계 철도차량 시장에서 기업별 점유율(2001~06년 평균): 봄바르디아 21%, 알스톰 19%, 지멘스 16%, 일본 5개 기업 합계 9%

□ 일본 정부는 정책 방향으로서 안전 개발, 컨소시엄 형성 지원, 경제협력 강화 등을 제시

- 경제산업성은 우선 일본 기업의 컨설팅 능력을 강화하고, 안전 개발단계에 관여하여 자국기업의 철도건설 수주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
- 특히, ‘텔리-뫼바이 산업대동맥 구상’ 등과 같은 해외 광역개발 구상을 통한 안전 개발을 강조
- 이외에도 일본 기업들의 수주지원을 위해 컨소시엄 형성 지원, 해외 현지실정에 맞는 차량·기재 개발이나 현지 생산·정비 거점 육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, 민관협력체제 구축, 정상외교를 통한 지원강화(top sales) 등의 방침을 피력함.
- 대외경제협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JBIC(국제협력은행)의 선진국에서의 투자금융 개시, NEXI(일본무역보험)의 활용도 제고, 엔 차관의 유효 활용 및 신속 공여 등이 언급됨.

<참고자료>

경제산업성, 인프라関連産業の海外展開のための総合戦略(案) 2010.3.26.

国家戦略室, パッケージ型インフラ海外展開推進実務担当者会議 자료, 2010.4.6.